

사회

밤되면 '살인택시' 판치는 광천동 길

시속 119km 달리다 무단횡단 2명 치어 사망

규정속도 60km '있으나 마나'

광주 도심도 밤만 되면 '총알택시'가 판을 치는 도로가 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과 종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볼 때, 광산구로 향하는 기차로 일대와 운암고가 방면 도로, 상록회관 주변 도로가 '총알 탄' 택시의 주무대다. 이들 도로는 규정 속도 60km(기차로 80km)미만이지만 심야 시간대만 되면 상당수 택시들이 과속으로 내달리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1시41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광주60차 XXXX호 개인택시(운전사 김모·30)가 길을 건너던 고모(43)씨와 김모(40)씨를 치어, 고씨 등이 현장에서 숨졌다.

김씨의 개인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조사결과, 사고 직전 차량속도는

시속 119km로 밝혀졌다. 사고발생 도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60km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과속을 했다"며 "어두운 시간인데도 피해자들이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개인택시 운전사 김씨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과속으로 달리다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개인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조사결과, 사고 직전 차량속도는

과속운전은 필수적으로 교통 신호마저 무시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취업준비생 이모(여·27)씨는 "버스운행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타면 지레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서도 사고 지점 전후 횡단도로,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있었으나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택시들이 도심을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고, 특히 편도 4차선이 넘는 도로에서는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것은 예상이지만 단속은 힘들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유령기계 담보 수십억 대출 광주지역 신탁 직원 2명 구속

광주지검, 10곳 자금추적

광주지검은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허위 등록 서류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준 광주지역 신탁 2곳의 직원들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이들 신탁 외에도 지역 내 다른 신탁 및 새마을금고 10여곳의 직원, 허위 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사 직원 등을 상대로 자금추적을 계속하고 있어 추가 범죄사실도 계속 드러날 전망이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상영)는 26일 "뇌물을 받고 건설기계 허위 등록 서류를 근거로 55억8900만 원을 대출해 준 광주 모 신탁 직원 송모(41)씨와 같은 수법으로 76억5000만 원을 대출해 준 또 다른 신탁 직원 박모(32)씨를 각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H사 사장 송모(42)씨와 부사장 조모(37)씨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33차례 걸쳐 1억9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송씨는 대출 1건당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500만원을 받는 한편 이사비용과 차량 구입비, 아내 옷가게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2월 광주시 북구 모 식당에서 H사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이틀로부터 3회에 걸쳐 모두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H사 사장 송씨와 부사장 조씨는 같은 수법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8대의 건설기계 허위 등록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43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425) 김장동



수능 압박감에...

고3 수험생 자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A(18)군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져 있는 것을 A군의 어머니(47)가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9구급대원이 발견 당시 이미 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조사에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 깨우려고 들어갔는데 숨져 있었고, 터버린 번개탄이 옆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된 유서에서는 "삶의 의욕이 없다. 재미가 없다.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적혀있었고 A군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교에서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허위입원·고의 교통사고 난뒤

수십개 보험사서 보험금 타내

목포경찰, 일가족 3명 검거

나주경찰, 50대 등 3명 조사

허위로 입원해 질병 보험금을 타내거나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26일 수십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입원을 반복하며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여·50)씨와 딸 강모(25)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3개월간 30여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

으로 가입한 뒤,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인데도 장기간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경찰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6)씨와 동거녀 황모(4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13일 나주시 삼영동의 한 주차장 진입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SM5 승용차로 진입통제용 바리케이드를 고의로 충돌한 후,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일자리 찾기 장사진

'2011 광주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가 26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렸다. 일자리 찾기에 나선 어르신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불법 재하도급 업자 무더기 덜미

전남경찰, 건설업 대표 등 36명 적발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불법 재하도급 등 각종 건설 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 등 36명을 적발했다.

국내 굴지의 도장 전문업체인 P사 대표 김모(38)씨 등 3명은 최근 3년간 약 11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공사대금 중 15~25%를 챙긴 뒤 무면허 건설업자 23명에게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경찰조사결과 운송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비자금 조성하는 한편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이 업체에 건설 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10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은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게 재하도급하고 무면허 업체는 저가로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어 공사현장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업체와 자격증 대여자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화학교 법인 취소 법정 가나

광주시, 다음달 14일 허가 취소

우석법인, 행정소송 의사 비처

교직원들의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원한 인화학교의 운영 주체(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법인은 인화학교, 인화원 등의

존립기반으로, 광주시가 허가취소를 확정하면 모든 시설이 법적으로 폐쇄된다는 점을 고려한 듯 재단 핵심 관계자가 26일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인화학교 법인 우석의 A이사는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가 납득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과거에 인화학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법인 임원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한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A이사는 "당시 법인 임원 해임 조치 이후 법인이 다시 행정조치를 받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허

가 취소 사유가 납득할만한 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법인의 허가 취소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이사는 "이사들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목적에 맞게 생활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음달 11일) 시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이사회(5명)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25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3차 '사회복지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달 14일 우석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발목 골절 용의자 구조요청했다 덜미

○...절도혐의로 부산경찰의 추적을 받아오던중 광주로 도주해 2개월간 도피생활을 해왔던 용의자가 도주 중에 발목이 부러져 구조를 요청했다가 경찰에 덜미.

○...25일 경찰의 추적을 피해 광주시 북구의 한 원룸 2층에 살던 차모(29·울산시)씨 경찰의 잠복 사실을 알고, 원룸 5층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다가 양쪽 발목이 골절돼 직접 119에 구조를 요청.

○...구조요청을 받은 119가 출동하자 때마침 잠복중이던 부산경찰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의 차씨를 검거한 것.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1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합격]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9급 검찰직** **영·수·합격(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평론/명문대**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